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권석원

- 진주중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2021년도 5급 공채 재경직 합격

I. 들어가며

고시를 시작한 후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며, “언젠가 합격한다면 나도 이런 합격 수기를 써야겠다.”하는 행복한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각오를 되살려 조금이나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에 비해 공부법이나 노하우는 적겠지만, 저와 비슷한 시점에 고시를 시작하셨거나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 글이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II. 기간별 수험공부과정

1. 수험기간

처음으로 고시에 진입한 것은 2020년 7월입니다. 첫 시험은 2021년 5급 공채 제1차 시험이며 그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수험 기간 자체는 1년 정도로 짧지만, 이미 경제학부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재경직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2. 2020년 7월 ~ 2020년 10월

예비순환 없이 1순환에 진입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오전에 PSAT 강의를, 오후에 2차 과목 1순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7월 한 달은 저녁에 한국사 공부 및 행정학 예비순환을 수강하며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학 외의 과목은 전부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 1.2~2.0 배속으로 수강하여 혼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사 및 영어 관련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저녁 시간을 오로지 2차 공부에 할애하였습니다. PSAT의 경우 60~70점대였던 자료해석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해당 과목의 강의가 없는 시기에는 오전에도 2차 과목을 공부하거나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웠습니다.

1순환 재정학 강의를 끝난 후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제학과 병행할 수 있는 국제경제학의 1순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제학 강사분과 상담한 후에 통계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경제학을 위하여 1순환까지는 오후에 국제경제학 강의를, 저녁에 통계학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였습니다.

1순환 기간 동안 경제학의 경우 문제 풀이 보다는 서브 노트를 만들면서 개념 및 토대를 확실히 잡고자 하였고, 행정법의 경우 예비순환 없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시중에 나온 여러 강사들의 암기장 및 사례풀이집을 비교하며 읽어보았습니다. 행정학은 예비순환과 1순환을 병행하며 각각 서브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재정학의 경우 서브 노트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통계학이

나 국제경제학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3. 2020년 10월 ~ 2021년 3월

PSAT 점수가 안정적이었기에, 2순환 기간에는 2차 과목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경제학은 실감을 들으며 스터디원과 진도에 맞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인강으로 수강하였으며, 본격적인 문제 풀이와 더불어 저만의 암기장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비부터 3순환까지 모든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한 행정학은 이전에 만든 서브 노트를 보강하는 동시에 '재미있는 행정학'을 정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재정학의 경우 강의시간에 기존 서브 노트를 보완하였으며, 남는 시간에는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국제경제학은 강의를 수강하거나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통계학 역시도 2순환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1순환 때 부실하게 공부를 하였기에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약 3주가량 혼자서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개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중순부터는 1차 시험만을 공부하였습니다. 오전, 오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실전처럼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 9월에 기본강의만을 수강한 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만, 교과서나 OX문제집등을 이용하여 개념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가오는 1차 시험에 대한 부담과 피

로로 인해 시간과 관계없이 문제 풀이가 끝나는 대로 그날 공부를 마쳤습니다.

4. 2021년 3월 ~ 2021년 7월

1차시험이 끝난 후에는 경제학 3순환이 개강할 때까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를 만났습니다. 너무 늘어진 나머지 다시 수험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학 3순환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시경제학 위주로 공부하였으며,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암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답안 작성은 모의고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행정법은 당장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인강으로 강의를 들으며 2차 시험 직전까지 거의 매일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행정법의 암기 부담으로 인해 행정학 강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강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행정법 암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정학의 경우 강의시간에 개념 암기 및 정리를 끝내고자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제를 풀거나 행정법 암기를 하였습니다. 통계학은 3순환에 와서야 처음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였기에, 그동안 풀지 않았던 연습문제 및 1순환, 3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2차 시험을 앞두고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4순환 모의고사 문제만 풀고서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의 대부분은 행정법 암기에 투자하였고, 2차 시험 시작 일주일 전에 최종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시험

전 주말 동안 행정학 서브 노트를 통해 급하게 행정학을 공부하였고, 경제학은 주중 2일을 할애하여 미시, 거시를 하루씩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과목 공부가 부족하였던 터라, 오전에 시험을 친 후 집에 돌아와 숙면을 취하고, 저녁에 일어나 그때부터 밤을 새우며 다음 과목 공부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Ⅲ. 과목별 수험공부방법

1. 제1차 시험

(1) 헌법

헌법을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저는 60점을 넘긴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9월 중에는 김유향 선생님의 기본강의만 수강하고서 강의시간 외에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헌법 공부를 시작한 것은 1월로, 교과서를 꼼꼼히 1회독 한 후 나머지 시간에는 OX문제집을 이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1월 동안은 거의 매일 1~2시간씩 내용 위주로 공부하였으며, 2월에는 PSAT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헌법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의 경우, 2021~2022년도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근에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커진만큼 언어논리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22년도의 경우 논

리 퀴즈가 비교적 쉽게 출제된 반면, 기타 독해 문제나 추론, 논증과 관련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논리퀴즈 외의 문제의 경우에도 문제 자체보다는 제시문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이를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경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만, 이를 참고하여 다음 시험을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언어논리에서 80~90점대의 점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처음 고시에 진입하였을 때는 2~3일 정도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이후에는 모의고사만 받아서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는 아껴두었다가 2월 한 달 동안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언어논리와 관련하여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이를 다른 수험생분들이 선불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고시절부터 국어 문제를 풀 경우 발문과 선택지부터 먼저 읽고서 이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언어논리를 풀더라도 항상 선택지를 훑어보고서 본문을 읽는 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택지로부터 해당 문제가 지엽적인 독해를 원하는지 혹은 전반적인 이해를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독해의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또한 선택지를 미리 읽게 되면 문제에 따라 본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선택지를 먼저 읽게 되는 데서 오는 시간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러한 접근법에 충분히 숙달되지 않으면 오히려 점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저는 OMR 마킹까지 포함하여 처음에는 85분, 나중에는 80분을 목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시간 내에 풀지 못한 적도 있었으나, 시간 지남이면 풀이를 멈추고 남은 문제는 상황판단까지 모두 푼 후에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실전에서는 긴장감이나 부담감으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90분을 겨우 맞추었습니다.

저의 방법대로 언어논리를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보다 본문 요약 연습 등을 통해 기초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과 관련해서는 노력을 통해 많은 점수를 끌어올리신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PSAT 세 과목 중 가장 점수가 낮아, 세 과목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산력을 기르기 위해 비타민이나 석치수 선생님의 계산 문제집을 꾸준히 풀었으며, 모의고사 강의 또한 열심히 수강하였습니다. 1차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정하고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표·그래프 일치 문제 등을 아예 버리는 전략을 연습하였습니다. 절약한 시간으

로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상황판단

자료해석과 마찬가지로 크게 언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상황판단에서는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상황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려운 퀴즈 문제를 맞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 부합형이나 법률형 등의 유형에서 단 하나의 오답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대부분 맞는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거나 스스로 실수를 범하지만 않더라도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잘 풀지 못하는 퀴즈 문제를 연습하기보다는 일치 부합형이나 법률형 문제, 간단한 추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 제2차시험

(1) 경제학

경제학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과목입니다. 1순환부터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만, 경제학부의 대부분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상태에서 고시에 진입하였기에 별다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후에는 서브노트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복습을 하였고, 2순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위주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학 과목에 있어서 개념만 확실히 숙지한다면 그 이후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폭넓은 문제풀이

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과목에 비해 경제학은 답안 작성 자체의 부담감이 적다고 생각하여 저는 모든 문제를 실제 답안처럼 작성하면서 풀기보다는 초안을 잡는 정도로 간단하게 풀어봄으로써 더 많은 문제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 수학적 풀이를 통한 정답 현출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 개념을 공부하거나 문제를 풀면서도 미시 문제에 통용되는 경제학적 사고 방식과 풀이 방식 자체를 숙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학의 경우 학과나 이론별로 사고체계가 상이하기에 여러 모형들 자체와 각 모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부의 중점 역시 수학적 풀이 자체보다는 그를 기반으로 한 각 모형들의 경제학적 함의에 두었습니다.

(2) 행정법

경제학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과목입니다. 행정법 역시 1순환부터 시작하였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1순환부터 행정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법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신분들께는 예비순환부터 들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1순환부터 수강하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의 문제풀이보다는 기초적인 법개념을 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법 과목과 관련해서 많은 합격생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가장 핵심은 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논리적 구조의 파악에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초시생의 경우 당장의 암기부담으로 인하여 ‘행정법 = 암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암기 자체를 기본기로 두고서 행정법이 요구하는 논리 체계를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코앞에 닥친 2차시험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암기에만 치중하여 고득점 달성에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시 행정법을 공부해야한다면 1순환이나 2순환 기간에 기초를 보다 탄실히 쌓는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3) 행정학

재경직 수험생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행정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접 2차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행정학을 어려워했습니다. 실제로 3순환이 끝날 때까지도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으며 2시간 동안 100점짜리 답안을 처음으로 써본 것이 2차시험 현장에서였습니다. 그만큼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한 과목이었지만 막상 실제 시험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매 순환기간마다 실제 답안을 써보지는 않았으나 개념이나 이론들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암기해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것들만 암기하고서 살이 되는 내용은 최대한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읽은 후 저만의 표현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

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저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선택적으로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4) 재정학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재정학을 꼽을 것입니다. 학부과정에서 재정학과 관련된 수업을 이미 많이 수강하였기도 했고, 과목의 특성이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경제학 시간에 재정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 더욱 집중하여 공부했던터라 재정학만의 부담 자체는 적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만큼 저는 1순환부터 로젠의 재정학이나 공공경제학과 같은 시중의 교과서들을 참고하여 폭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서브노트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이후에는 2순환이나 3순환 때 새롭게 알게 된 내용만을 추가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풀이까지 가능했던터라 2차시험 직전까지도 큰 부담 없이 세부적인 내용만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경직 수험생에게 재정학만큼 공부 효율이 좋은 과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 공부가 경제학 공부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독립적인 공부 범위 자체는 타 과목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경직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재정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통계학

저는 처음에는 국제경제학을 선택하였으나, 강사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은 끝에 통계학으로 바꾸었습니다. 1순환까지는 국제경제학과 통계학 강의를 병행했던 터라 실질적으로 통계학 공부를 시작한 것은 2순환 기간입니다. 2순환 기간 동안 스스로 통계학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개념을 다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교과서의 연습문제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제가 수강하지 않은 강사분의 모의고사 문제까지 구하여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통계학 과목이 고교시절 수학과목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개념이나 원리는 당연히 기본이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 풀이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인만 실력을 기른다면 충분히 50점 만점 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IV. 나가며

고시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직접 수험생활을 해본 사람들 외에는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음은 물론이거니와, 상대평가의 특성상 반드시 발생하는 경쟁과정 역시 수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 힘든 과정 역시 결국은 끝이 나며, 고시 공부에 쏟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수험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모든 수험생분들이 포기하지 않고서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